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창세기 15:1-7
2026 년 9 월 27 일 오전 11 시

하나님의 벗, 아브람

< 주여 도우소서 >

창세기 15 장은 “이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일이 있은 후인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전에’ 아브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4 장에서 아브람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북방 연합군을 추격하여 롯을 구해냅니다. 승리 후 돌아온 아브람은 두 왕을 만납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왕, 소돔 왕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브람은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전리품 중 자신의 몫을 포기합니다. 아브람은 믿음으로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뜻밖입니다. 방금 전까지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었던 아브람에게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아브람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람이 지나온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얼마 전까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브람의 마음에 긴장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구약 시대에 고대 근동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들의 출정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대상 20:1).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는 겨울 우기가 끝나고 봄이 되어 군사 작전을 재개하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농사 일정과 기후 때문에 겨울에는 대규모 전쟁을 피했고, 날씨가 좋아지는 봄에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1.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 봄이 돌아오면, 메포포타미아 네 왕이 아브람을 치러 가나안으로 출병할 것입니다. 아브람이 돈이 있다면 용병을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데 믿음으로 거절한 소돔 왕의 재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브람 마음 속에 ‘만약 다시 적들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담대한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결단 뒤에도 연약함은 찾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했습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1 상반절). 아직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는 주로 “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창 13:14).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사 41:8).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종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람의 두려움을 아시고, 아브람의 질문을 들으시며, 아브람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2 절). 흥미로운 것은 이전까지 아브람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람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창 12:4).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창 13:18).

그러나 창세기 15 장에서 관계가 한 단계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건네신 첫 말씀은 두려움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있는 친구를 안심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없는 사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현실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아브람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네 방패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친히 자신의 존재를 방패로 내어주셨습니다. 천지의 대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방패라면 어떤 화살도 어떤 창도 어떤 칼도 아브함을 해할 수 없습니다. 훗날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시 3:3).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시 18:2).

2. 가장 큰 상급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공격도, 세상의 불안도,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은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보지 말고, 네가 가진 분이 누구인지 보아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입니다.

헌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שְׂכָרְךָ הַרְבֵּה מְאֹד (세카르카 하르베 메오드)인데, 직역하면 ‘너의 상급은 매우 크다’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1 하반절, 새번역). 공동번역도 비슷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브람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1 하반절, 공동번역).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주실 것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2 절).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5 절).

아브람은 아직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6 절). 바울은 이 구절을 로마서 4 장에서 이신칭의(以信稱義: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아브람은 율법을

지키거나 공로를 쌓아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자손 뿐 아니라 가나안 땅도 상급으로 줍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7 절).

그러자, 아브람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8 절). 방금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람이었지만,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징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완전해서 하나님의 벗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은 두려워했고, 질문했으며, 확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람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9 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을 가져온 후, 큰 짐승들의 몸을 둘로 쪼개어 서로 마주 보게 놓았습니다.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10 절).

왜 아브람은 이렇게 한 것일까요? 이 모습은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는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쪼개어진 짐승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러한 언약 의식을 언급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렘 34:18).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4 장에서 아브람은 마므레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동맹을 맺을 때 서로 약속을 확인하고, 서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3.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아브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신이 알고 있던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확실한 언약으로 세워 주십시오.” 그러나 창세기 15 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17 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부족한 이해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약의 방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완성된 사람만 벗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람을 단순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훗날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람이 처음부터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은 아브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람의 믿음은 창세기 14 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14 장에서 아브람은 놀라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삼백십팔 명을 데리고 네 왕의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강력한 군대도 없었고, 왕국도 없었습니다. 단지 318 명의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은 나아갔습니다.

아브람은 롯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특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람을 창세기 15 장에서 가까운 관계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성경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사 41:8).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4).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절에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랑,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자신의 것 중 가장 귀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브람은 자신과 갈라선 롯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형제 사랑이 아브람을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벗이 된 아브람처럼, 여러분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